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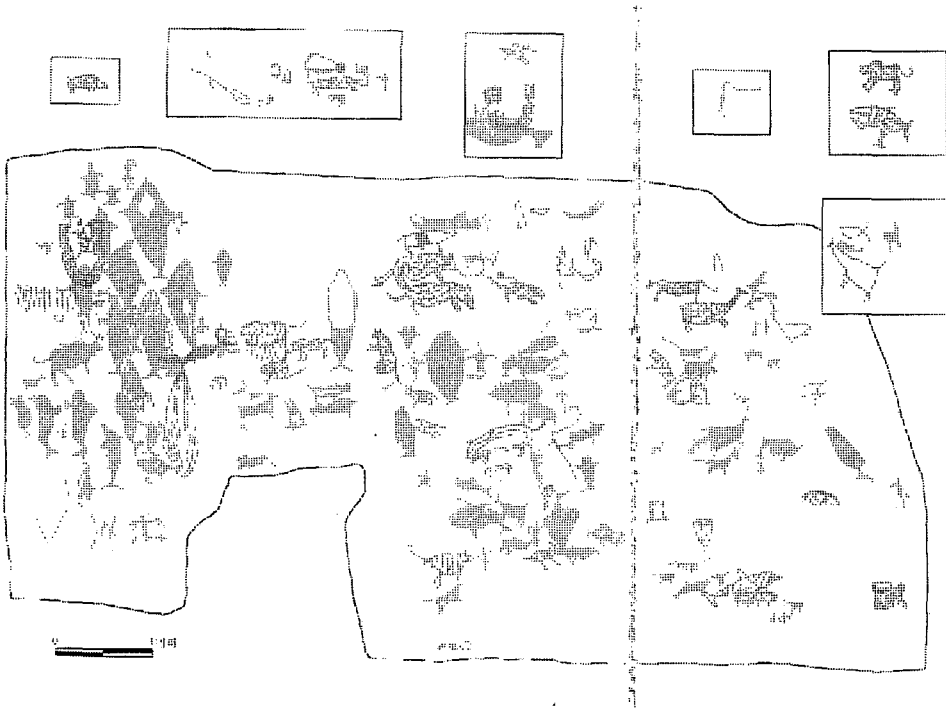
“ 울주 대곡리 바위그림속에 담긴 과학과 영재교육 탐구시론”

정동찬(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연구실장)

머리말 - 과학과 예술은 하나다.

과학과 예술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을 다룰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제까지 예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온 나머지 과학적 접근에 소홀히 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문화유산은 모두 고미술(古美術)로 불리워져 오고 있으며, 과학문화유산하면 단지 천문, 지리, 군사기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학문화유산의 범주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선사시대로부터 미래까지 의·식·주로부터 종교·놀이로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의 폭을 넓힌 개념이 바로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겨레과학」이다.

겨레과학은 과학과 예술이 하나되는 인식을 전제한다. 우리 문화유산을 다룰 때 현대관념의 과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심미성이 사라지고 거꾸로 고미술개념의 예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과학성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과학과 예술이 하나되는 인식체계를 회복해야 한다. 과학자체가 예술이고 예술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Technology)과 철학(Philosophy)의 결합으로 과학(Science)이 탄생했고 기술(공예)의 어원(Techn+logos)은 곧 예술(Art)이고 공예(Craft)이기 때문이다. 이 어원은 우리의 공예(工藝:工業+藝術)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우리 문화유산을 과학기술의 산물로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며 과학이 예술로, 예술이 종교로 승화되는 자연스런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하는 방법보다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즉 과학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예술의 첫 장을 장식하는 울주 대곡리 바위그림을 소재로 하여 선사시대 사람들의 과학슬기와 영재교육의 한 단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I. 바위그림의 짜임새

이 바위그림은 경남 울산시 언양면 대곡리 반구동 (북위 35°36' 05" , 동경 129° 1' 07")에 있다.

천전리 바위그림에서 약 2km쯤 하류인 태화강 상류 냇물과 닿아 있는 「건너각단」이라는 절벽에 높이 약 70m, 너비 약 20m의 바위벽에 높이 약 2.5m, 너비 약 9m의 물에 가까운 아랫부분에 그려져 있다. 암질은 천전리와 같은 켜바위 (shale)로 색깔은 붉은 빛을 띤 고동색(楮色)이며, 굳기는 3.5이다. 이 바위그림은 덧그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평면그림과 선그림들로 시기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다.

1. 평면그림

평면그림은 크게 물짐승(고래중심) 부분과 물짐승(사슴중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물짐승(고래중심) 부분

- (1) 성기를 내밀고 있는 남자와 3마리의 거북
- (2) 돌새김으로 된 새끼고래를 업고 있는 어미고래
- (3) 작살이 돌새김된 고래와 미확인 물체
- (4) 물을 뿜고 있는 고래
- (5)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자
- (6) 배그림
- (7) 배부분이 돌새김된 고래
- (8) 까부는 돌고래
- (9) 해조류를 쓰고 있는 고래와 그 왼쪽의 울산 참고래

2) 물짐승(사슴중심) 부분

- (1) 사슴(순록) 그림
- (2) 큰 고래와 두마리의 물개
- (3) 성기내민 남자와 멧돼지
- (4) 성기내민 남자와 고래
- (5) 사슴과 활을 든 사냥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선그림

이 선그림은 평면그림보다 나중에 평면그림을 피하여 그리거나, 혹은 덧그려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림의 구성에 있어서도 집중된 부분이 없이 산발적으로 그려져 있어,

- 1) 교미하는 멧돼지와 속보기(x-ray) 수법
- 2) 거꾸로 그려진 큰 고래
- 3) 고래분배그림
- 4) 그물과 울, 그 안의 짐승
- 5) 많은 구멍이 난 짐승들
- 6) 얼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I. 바위그림에 보이는 짐승들의 생태과학

1. 평면그림 : 물짐승(고래중심)부분

1) 3마리의 거북

거북이는 공주 석장리에서 발굴된 후기구석기시대의 돌거북과 함께 우리 역사속의 의식으로 “ 거북신앙”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곳의 지명 역시 “ 반구대(盤龜臺)” 여서 장수, 벽사(僻邪), 상서롭고 귀여운 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북신앙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북의 그림은 오늘날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

거북이의 경우 선사시대그림은 성과 풍요·생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정상징으로 풍요를 비는 그림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전에 먼저 거북의 생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거북은 6종류로 밝혀지는데, 개울이나 연못의 자라와 남생이 2종류, 앞바다의 붉은바다거북·푸른바다거북·대모거북·장수거북 4종류이다. 이 거북은 물가나 물가진흙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수온이 15℃정도 되면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고, 20℃이상 되면 물 속에서 나와 먹이를 찾거나 일광욕을 하고 모래밭에 올라와 알을 낳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닷물 온도가 15℃정도 되는 것이 4월경이고 20℃이상이 되는 것이 현재 5월 하순부터이다. 그러므로 거북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고래가 동해안에 나타나는 시기나 성어기와 같아서 아마도 거북이 고래 출현의 징표로서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2) 새끼 업고 있는 어미 고래

이 그림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새끼뺨 고래로 보아 풍요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새끼고래는 원래의 바위면을 남겨둔 채 큰 어미고래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생겨나서 고래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래의 밖, 등위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 아래에 보이고 있는 작살이 그려진 고래에도 작살이 원래의 바위면을 남긴 채 고래를 쫓기로 표현하면서 고래등에 쏘아진 작살임을 나타내려 한 것과 같은 수법의 그림이다. 이러한 수법은 공간의 개념을 가진 입체 그림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미 3차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여겨지어 주목된다.

어미 고래는 이동할 때 새끼고래를 업고 이동한다고 하며 새끼고래는 바로 업고 있는 어미의 머리위에 업히는데 그 까닭은 새끼의 훈련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고래의 생태가운데 하나, 즉 새끼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어미고래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고래의 종류는 그 모습으로 보아 귀신고래{gray(grey) whale ; *Eschrichtius robustus* ; 克鯨}로 가늠된다. 쇠고래, 울산 돌고래라고도 불리는 이 고래는 다른 수염고래보다 배주름이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어 새끼를 업기 편하다. 귀신고래는 느리게 헤엄치고 유순하여 선원들이 배를 저어 가까이 가기가 쉬워서 고래사냥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새끼에 대한 애착이 고래가운데 가장 강하고 항상 가족끼리 떼를 지어 이동하며 새끼가 다치거나 죽으면 매우 사나워져서 그 곁을 떠날 줄 모르다가 결국은 같이 잡혀 새끼보호에 악착같은 고래라 하여 귀신고래(devil fish)라는 이름을 얻었고,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장 많이 회유해오

던 고래로 유일하게 Korean gray(grey) Whale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래이며, 그 회유해면이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도 여러가지 고래관련 책의 사진에는 새끼고래와 같이 가는 귀신고래(쇠고래 : 울산돌고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고래잡이동안 이와 같은 귀신고래의 새끼사랑을 보고 느낀대로 생생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작살이 뜯새김된 고래

앞에서 살펴본 새끼를 업고 있는 귀신고래 아래에 다른 그림들과 겹치지 않도록 교묘히 윤곽선을 돌려 작살에 맞아 비틀림으로 요동치는 듯한 고래가 있다. 작살을 맞은 고래는 한동안 죽을 때까지 작살이 꽂힌 채로 강하게 헤엄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대로 생생하게 그린 그림으로 여겨진다. 작살이 박힌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전체가 원래의 바위면으로 되어 있는 어미 등에 업힌 새끼고래의 표현과는 달리, 작살의 윤곽을 일단 그리고 나서 작살이 박힌 부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살 끝의 왼쪽부분과 맨 앞부분에 고래몸통과 같은 수법인 쪼오기를 베풀고 있다.

이 그림은 확실히 작살에 맞은 고래를 그린 그림으로 꽂힌 작살은 정확히 지느러미 바로 아래 심장부에 표현되어 있는데, 티커라미우트족(Tikeramiut : Tigara의 Eskimo)도 고래사냥때 심장을 맞히려고 애쓰며, 지금도 고래잡이배의 포수는 이곳에 작살을 조준하여 정확히 맞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그림은 그린 이의 뜻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즉 작살로 심장부를 정확히 맞힌 고래를 그리고서 고래가 잘 잡혀 주기를 기원한 것일 뿐 아니라 고래를 사냥할 때 작살을 정확히 꽂을 곳을 나타내서 위험한 고래사냥과정에서 실패에서 올 위험성 등을 생각하여 신중히 심장부에 작살을 그려 고래잡이의 성공과 안전을 빌었은 것이다.

바위그림의 쓰임새 가운데 하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정보전달, 의사소통, 교류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그림은 교육·주술 등에 관한 시각자료로서 이 고래잡이집단의 교육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생각되며, 고래의 심장부에 정확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실수 없는 고래사냥을 하도록 이 그림을 가지고 가르쳤을 것이다.

이러한 풀이를 뒷받침 해 주는 예로 Aleut 지방에서는 나무로 된 고래모형을 만들어 달아 놓고 어린이들이 땅에 앉아 다리를 펴고 던지는 창으로 던져 맞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각종 고래의 나무모형을 만들어서 그 각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코락족(Koryak : 북부알래스카 에스키모)도 교육을 위한 장난감으로 활, 화살, 작살, Whizzling Stick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어른들

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고래도 귀신고래로 가늠되며 그 왼쪽지느러미 아래에 있는 눈과 아가미를 표현한 것 같이 둔색감된 고래도 귀신고래의 걸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귀신고래의 걸모습은 머리부분에 각질층이 있으며 직선에 가까운 입을 가지고 있고, 인후부에 2~4줄의 짧은 골이 쳐 있으며 머리와 턱에는 강한 수염이 나 있고 등지느러미가 없다.

4) 물을 뿜고 있는 고래

이 그림은 가장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그려진 부분인데, 특히 가장 오른쪽 고래는 그 생생한 표현에 상당히 놀랍다. 대곡리의 고래그림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깝도록 그려져 있는데, 고래의 종류는 수염고래인 긴수염고래(Black right whale: *Eubalaena glacialis*:참고래;큰고래)로 가늠된다.

이 그림에 대하여 차례로 헤엄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고래의 생태에 비견되는 하나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래가 먹이를 먹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래는 물뿜기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고래잡이에 종사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먹이를 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래사냥을 하면서 고래를 많이 관찰했던 당시 사람들이 물뿜는 모습을 먹이 먹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고래의 물뿜기 모습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래의 물뿜기 모습은 고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긴수염고래는 V자형, 정어리 고래는 가느다란 원추형, 향유고래와 혹등고래는 서양배 모양을 하는데, 특히 향유고래는 왼쪽전방 45°방향으로 뿜는다. 이 그림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긴수염고래의 물뿜는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배부분이 둔색감된 고래

이 그림은 고래의 머리에서 배꼽부분까지 원래의 바위면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쪼으기를 베풀었다. 이 그림의 배꼽 아랫부분에는 호랑이 꼬리가 선그림으로 덧 그려져 있어 평면그림과 선그림의 상대연대추정에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 그림에 대하여 미완성품일 것으로 보기도 하고, 완성품이라 보기도 하면서 둔색감부분에 대하여 뇌와 복강부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속보기(X-ray)수법의 한 변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수법이 앞에서 살펴본 새끼고래를 등에 업고 있는 고래와 작살이 박혀 있는 고래 그림의 표현수법과 같아서 이 그림 역시 고래의 생태에 따른 특징을 잘 살려 생생하게 그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바위면은 고래 가운데, 특히 배부분이 흰 흰줄박이 돌고래(솔피:killer whale;*Orcin us orca*)의 흰 배부분을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까닭에 이 그림 역시 고래의 종류에 따른 생태를 보여 주고 있는 그림이라 하겠다. 이러한 그림의 표현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고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생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고도 세밀한 지식에 밝았음을 알 수 있다.

6) 까불고 있는 곱시기

그림 가운데 돌고래가 엎어져 있고 물결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림이 있다.

돌고래는 장난치기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도 돌고래쇼가 인기가 높다. 그리고 이 그림의 모습을 보더라도 고래의 배부분 양쪽으로 물흐름을 선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돌고래의 생태와 그림의 모습으로 미루어 풀이해 보면, 이 그림은 당시 고래사냥꾼들이 바다에서 보았던 돌고래의 까부는 모습을 활기차고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물결의 흐름까지도 표현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그림에서도 당시 사람들의 고래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예리한 관찰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고래의 종류는 까불이 고래로 유명한 곱시기(*Phocoena phocoena* ; 돌고래)로 가늠된다. 귀신고래도 파도가 부서지면 펄떡펄떡 뛰고 물장구치며 몸을 모로 회전시키는 재주를 피운다고 한다. 곱시기든 귀신고래든 그 까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 것으로 틀림없어 보인다.

7) 해조류를 쓰고 있는 고래와 그 왼쪽의 울산 참고래

머리와 목 부분의 걸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된 귀신고래 꼬리지느러미 바로 아래쪽에 불가사리처럼 사방으로 흐느적거리는 듯한 선그림이 있고 그 안에 고래 한 마리의 머리부분이 묻혀 있다.

이 그림은 귀신고래가 해조류를 뒤집어쓰고 노는 모습과 흡사하다. 귀신고래는 얇은 돌틈사이나 해조류를 비집고 다니기를 좋아하여 해조류가 많은 곳에서는 해조류를 침대처럼 깔고 옆으로 누워 지느러미로 해조류를 두드리거나 해조류로 배를 문지르며 해염을 치기도 하고 뒤집어쓰기도 하면서 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귀신고래가 해조류를 뒤집어쓰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놓은 그림으로 풀이된다.

이 해조류와 고래 왼쪽으로 고래몸통을 4번 정도 곡선으로 뭉클뭉클하게 표현하

고 마지막 꼬리부분도 몽클하게 구부러지도록 처리하면서 길게 그린 고래그림은 올산 참고래(Fin Whale : *Balaenoptera physalus* ; 장수경 ; 나가수)로 가늠된다.

2. 평면그림 : 물짐승(사슴중심)부분

1) 사슴(순록)그림

사슴(순록)은 눈이 쌓인 곳을 좋아하는 짐승으로서 현재에도 북극해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의 하나인 동시에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후빙기 유럽에서도 고기, 심줄, 가죽, 뿔 등이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 사슴(순록)은 주로 울(enclosure), 함정(trap), 덫(snare) 등을 이용하여 잡거나 낭떠러지나 강가로 몰아서 잡는다. 함정과 덫은 가을 사냥에, 특히 덫은 겨울사냥의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슴의 존재는 사냥계절이나 기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짐승으로 주목된다.

또한 사슴의 상징적인 의미도 대단한 데, 유럽에서는 사슴이 태양신(sun god)이나 다산신(fertility god)에 대한 제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반구 전역의 사냥꾼들에게는 우주동물(cosmic animal)로서 하늘과 땅,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황금의 뿔을 가진 신의 심부름꾼(messenger)으로 기능하기도 하여 단순한 식량자원을 넘어서서 사냥꾼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큰 고래와 두마리의 물개

이 그림은 큰 고래의 배부분에 음각으로 깊이 패인 파충류 같은 그림이 있고 양쪽에는 각각 한마리씩의 물개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이 고래와 물개는 윗방향으로 헤엄쳐 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고래가 물개들에게 쫓겨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그림으로 여겨진다. 특히 물개는 어떤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이는 물개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대구로 추정된다.

큰 고래의 배안에 음각으로 깊이 표현된 그림은 새끼를 등에 업고 있는 고래나 작살이 박혀 있는 고래그림에서 새끼고래와 작살이 돌을 새김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수법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수법의 차이에서 볼 때, 이 그림은 어떤 물체를 머금고 있는 고래를 표현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배를 타고 나가 고래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고래를 잡아먹는 솔피나 돌고래 따위에 쫓겨 올라온 것을 잡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루어 볼 때, 이 고래그림은 물개나 바다사자 등과 싸우면서 쫓기는 모습과 싸우는 과정에서 적들을 삼킨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물개나 바다사자 등의 뼈는 이미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3. 선그림

1) 교미하는 멧돼지와 속보기(X-ray) 수법

이 그림은 바위벽의 거의 중앙부에 있는 그림인데, 멧돼지 두마리가 아래와 위에 그려져 있다. 그런 수법은 선조으기로 속보기(x-ray) 수법을 쓰고 있다.

위쪽에 자리한 멧돼지의 모습이 아랫것의 등에 올라 있는 상태이고, 아랫것이 꼬리를 들고 받아들이는 자세인 반면에, 윗것은 엉덩이 부분이 등그스름하게 구부린 듯이 표현되고 있으며 꼬리도 아래로 처지게 처리하고 있어 교미하고 있는 수컷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불룩한 배는 교미시 수놈의 힘을 나타내려고 한 자연스러움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즉 암컷 위에 올라 교미하고 있는 수컷의 웅크린 자세의 힘을 강조하려 했던 기교로 보인다.

German족의 믿음에서는 멧돼지가 번식과 풍요의 신성한 분배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켈트(Celt)족의 경우도 번영의 상징이고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로 취급되며, 짐승이 교미하는 순간의 그림은 풍성한 포획을 기원하는 주문으로 말하여진다. 그런 까닭에 이 교미하는 멧돼지그림은 멧돼지의 번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냥대상 짐승들의 많은 번식을 빌었던 상징물로 이해된다.

속보기(x-ray) 수법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경우,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살해, 해체된 짐승의 요리에 대한 설명도구로 사용되며, 사냥과 물고기잡이 주술로 원주민들에게 사냥물에 대한 주술적인 지배를 주고, 성공적인 사냥, 그림에 그려진 조상령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물로 사용되는 토렘동물의 많은 번식을 위한 매체로 쓰인다.

이와는 성격에 있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Aleut 사냥꾼들은 어린이들에게 짐승의 행동이나 해부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사냥물을 산채로 잡아 미이리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그림들은 사냥물의 풍요한 번식을 비는 그림인 동시에, 사냥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으로서, 주요기관·고기의 질과 분배·가장 효과적인 사냥을 위한 급소(생명선) 등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의식속에서 주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여겨진다.

이 교미하는 멧돼지 바로 아래쪽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등부분에 생명선을 선조으기로 긴선을 여러개 베풀고, 몸통은 모두쪼으기를 베푼 멧돼지가 있다.

이 멧돼지 그림의 모두쪼으기부분은 배부분, 즉 내장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서 멧돼지를 가로 잘랐을 경우의 내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 그림도 역시 멧돼지에 대한 해체방법이나 해부학적 지식을 주려한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어린 멧돼지의 다람쥐와 같은 털모습의 표현으로 믿어진다. 즉 어린 새끼멧

돼지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그림도 멧돼지의 생태, 특히 어린 멧돼지의 걸모습에 대한 지식을 주려한 그림으로 여겨진다.

2) 거꾸로 뒤집혀 그려진 큰 고래

이 그림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그림이 평면그림으로 된 수많은 고래 위에 덧그려 졌다는 점이며, 그 방향도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뒤집혀져서 거꾸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물위에 뛰어오르기를 좋아하는 평면그림에 보이는 대부분의 고래들과 달리 이 고래는 특히 바다 깊숙이 500m나 잠수하는 고래이어서 그 생태를 특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발고랑 무늬와 함께 아래쪽을 향하도록 그려 놓았을 지도 모른다.

이 고래의 배에 그려져 있는 10여줄 이상의 긴 선그림은 수염고래 가운데 참고래과는 목에서 배에 걸쳐 독특한 발고랑 무늬(배주름)가 나 있는데, 흰긴수염고래의 경우, 이 발고랑무늬가 고래가운데 가장 많은 85~95줄이 나 있으며, 그 길이도 가장 길어 배끝까지 내려온다. 이밖에 이 발고랑 무늬가 배끝까지 내려오는 다른 고래로는 울산 참고래(Fin whale ; *Balaenoptera physalus* ; 장수경 ; 나가수)가 있는데, 발고랑 무늬가 50~60줄이 나 있다. 이 고래그림은 흰긴수염고래가 아니면 울산 참고래의 이 발고랑 무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독특한 발고랑 무늬의 표현이나 고래그림의 크기로 보아 흰긴수염고래(Blue whale ; *Balaenoptera musculus* ; 대왕고래 ; 시루나가수)인 것으로 가늠된다.

흰긴수염고래는 이빨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긴수염을 가지고 있는 고래로 고래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너무 빨라서 잡기가 무척 어려워 대왕고래라고도 하는데, 세계의 모든 바다에서 살고 있는 가장 흔한 고래이다.

3) 많은 구멍이나 줄이 난 짐승들

몸통에 구멍이 나 있는 짐승그림으로는 사슴 2마리, 호랑이 1마리가 보이고 대부분의 호랑이들은 줄무늬를 하고 있다. 이 구멍들을 표피에 나 있는 얼룩반점의 표현으로 보아, 사슴의 경우는 사향노루로, 호랑이의 경우에는 표범이 아닌가 하고 있다.

이 구멍들이 사슴이나 호랑이에 상처를 내서 파괴하여 죽이기 위한 급소를 나타내어 사냥에서의 행운을 빌거나 가장 유효한 사냥법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반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또한 줄무늬가 나 있는 호랑이도 그 표피에 나 있는 줄무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몸뚱이에 반점이 있는 사슴가운데 사향노루(사슴)는 암수 모두 뿔이 없고 꽃사슴과 우수리사슴은 수놈만 뿔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하던 사슴은 사향

노루와 꽃사슴인 점으로 미루어 이 그림은 사슴가운데 뿔이 없는 것은 사향노루, 뿔이 있는 것은 꽃사슴으로, 다른 짐승들은 표범·호랑이로 풀이되는데, 이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 놓고 그 종류와 생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바위그림에 보이고 있는 같은 종류의 점박이 사슴을 아산 남성리 칼집장식에서, 사슴과 호랑이는 지금은 일본에 있지만 경주에서 출토된 것으로 말해지는 어깨갑옷에도 보이고 있어 선사시대의 오랜 기간을 통하여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예술의 주요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바위그림에 보이는 생활과학

1. 성기를 내밀고 있는 남자

성기를 내밀고 춤추는 듯한 남자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고래 그림은 머리쪽부터 꼬리쪽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편해서 위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결같이 이 사람을 향해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누트카족(Nootka)의 경우, 고래사냥을 나가기도 하지만 고래사냥꾼들의 우두머리이며 선장, 작살잡이인 사람이 해변가에서 고래를 불러모으는 의식을 행한다고 한다. 은밀히 시체를 가져다가 머리뼈의 목에서 입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tube를 끼워 나팔을 만들어 시체 뒤에 숨어서 tube로 고래를 부른다. 이 바위그림에서 좌측으로 떨어진 벽면에 피리부는 사람 하나가 보이는데, 이런 의식과 관계가 깊은 사람으로 생각된다.

North Alaskan Eskimo(Inupiat족) 사회에는 고래사냥을 수행하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Umialiks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래잡이배의 소유자이며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서 선원들과 서로 가까이 살면서 고래사냥 철에는 의례용 큰집(large ceremonial house)에 같이 기거한다. 왜냐하면 고래사냥은 공동노동과 연합의례를 수반하여 사회체계를 통합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Maritime Chukchi족 마을도 배주인(boat master)을 중심으로 한 선원들로 구성된다.

이와는 다른 사례이지만, 부산 가덕도에서 우리 고유의 방식대로 송어잡이를 하는데, 이때도 우두머리 어부가 높은 벼랑 위에 마련된 작은 집에서 바다를 지켜 보다가 송어떼를 발견하고 신호를 보내면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5~6척의 배가 주어진 임무에 따라 일을 한다. 오늘의 음파탐지로 하는 송어잡이보다 더 잘 잡힌다고 한다.

이 그림은 식량자원으로 중요한 고래들이 많이 자라나서 많이 잡혀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고래사냥을 나가기 전에 행하였던 어떤 의식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남자는 이 의례의 주인공으로 고래사냥을 위한 의식 집행인, 즉 남성의 생산력의 상징성과 함께 하는 주술적 기도인이거나, 고래사냥꾼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hunting chief)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의식은 고래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들이 많이 와주어서 잡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즉 고래의 번식을 빌면서 고래들이 잡기 쉬운 강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주도록 불러모으는 의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자

이 그림은 아마도 맨 꼭대기에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성기를 내밀고 춤추는 듯한 남자와 관련된 여자, 즉 우두머리의 부인으로 남편의 고래사냥에 따른 어떤 의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위그림에서 팔과 다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크게 부풀려 그린 것은 사냥꾼의 주술적인 힘을 상징하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생산에 관여하는 여자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손은 여성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말해진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우두머리의 부인이 고래사냥의식에서 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인의 왼쪽에 있는 두개의 그림도 이 부인과 관련 있는 여인으로 어떤 의식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티커라미우트족(Tikeramiut : Tigara의 Eskimo)의 경우, 집단 우두머리의 부인은 고래사냥을 준비하는 동안 선원들을 먹여 살리고, 사냥 동안이나 죽은 고래가 해변에 끌려 온 뒤에 중요한 의례적인 역할을 한다. 그녀는 모든 점에서 품위 있는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사냥을 망치게 된다.

Eskimo의 믿음에 따르면, 고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고기를 떨쳐 버리는 것이다. 고래의 영혼은 머릿속에 있어 고래가 도살된 뒤에 머리는 바닷속에 넣어진다. 그러면 새고래로 환생하여 다음해에 좋은 사냥운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고래가 그 몸통을 기꺼이 넘겨줄 수 있도록 그녀는 상냥하고 사교적이어야 한다.

누트커족(Nootka : Northwest Coast Indian)의 경우, 고래사냥꾼 아내는 사냥이 시작되면 사냥꾼이 자던 곳에서 새로 만든 삼목껍질 담요를 뒤집어쓰고 누워서 사냥하는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음식이나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고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녀가 하는 행동이 곧 고래의 행동이 되고 고래의 행동이 곧 그녀의 행동이 된다. 만약 그녀가 갑자기 움직이면 고래도 갑

자기 움직이게 된다. 고래사냥꾼들이 되돌아 왔을 때, 그녀는 고래를 맞으러 해변가에 나가서 나중에 바다에서 목마름을 호소할 고래의 입에 신선한 물을 쏟아 넣고 환영의 노래와 춤을 춘다. koryak, Chukchi, Siberian Eskimo족의 경우도 역시 고래를 손님 대접하면서 신선한 물을 주는데 그때 부인은 고래의 코, 입술, 눈, 지느러미, 꼬리에서 살점을 떼어 낸다. 지방을 떼어내기 전에 풀가면으로 고래머리를 덮어 흐르는 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례의식을 치른다.

그 밖에도 Eskimo 여인들은 중요한 사냥감을 사냥하는 동안 짐승들을 성나게 할까봐 바느질도 하지 말아야 하며, 옷을 만드는 데도 규칙적이고 완벽한 바느질로 아름답게 만들어 사냥꾼이 입어야 사냥감을 달랠 수 있다고 하며, 고래사냥꾼 사회에서 여인의 행위는 사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고래가 그 몸을 기꺼이 그 남편에게 주도록 단정하게 바느질을 하여야 하며, 물을 먹일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여인의 냄새는 사냥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수약물, 차, 냄새를 피워 사냥준비를 하는 등 여성의 행위 하나하나가 남성의 사냥수행능력과 직접 연결된다.

어머니로서도 어린이를 키울 때 절대 누워서 젖을 먹이지 않으며 서서 다 드러내 놓고 먹여서 아이를 거칠고 강하게 키우는데, 만약 그녀가 게으르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장래 사냥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커감에 따라 계속 살아가는 규칙을 가르친다.

3. 배그림

배그림은 고래잡이배로 보이는데 그 위에는 뱃사람들이 타고 있다.

이 곳에는 4척의 고래잡이 배가 보이고 7~8명, 11명, 20여명이 타고 있는데, 특히 뱃머리에 1명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주목된다. 이 우뚝 선 사람은 아마도 배의 주인이면서 작살잡이-우두머리-선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배그림을 의식배(cult ship)나 주술배(magic ship)로서 고래잡이의 풍요를 비는 것으로, 또는 동북아시아의 예를 들면서 죽음의 배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고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실제 그 비례를 따져 계산해 보면, 실제 고래잡이 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래·고래잡이꾼·고래잡이배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고래잡이배의 맨 앞쪽에서 고래에 작살을 던진 사람의 서 있는 자세로 보아 당시 사람의 키를 160cm정도로 추정하여 계산해 보면, 고래의 크기는 길이가 약 17.2m, 너비 6.1m, 배의 직선길이는 15.9m(곡선길이는 17.9m) 가량으로 헤아려 진다. 이 고래는 생김새와 크기로 보아 향유고래(Sperm Whale ; *Physeter macrocephalus*)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배의 크기와 생김새, 그리고 고래와 배를 잇고 있는 줄의 길이, 배에 탄 사람수 등은 뒤에서 살펴볼

고래분배그림과 함께 당시 사회를 복원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실측도에 가까운 결론을 얻게 되어 실생활과 연결된 생생한 모습임을 알게 된다. 이 그림을 보고 신석기시대라면 당시에 저렇듯 큰 배가 있었겠느냐 하겠지만 지금도 Siberia나 Alaska의 고래사냥 Eskimo들의 배 만드는 기술은 놀랍게도 아주 뛰어나다.

이와 같이 고래잡이를 나타내는 바위그림은 세계 여러지역의 원주민들도 남겨놓고 있으며, 바위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에서도 고래사냥 기술이 발달되기 전의 고래잡이 모습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바위그림의 모습과 비슷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고래잡이 방법은 5~10인 정도 태운 이러한 배들이 여러척 동원되어 고래를 추적 포위하여 작살을 던져 잡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척의 작은 배가 동원되어 작살을 던져 고래를 추적하여 잡고, 심지어는 고래의 등위에 올라 작살로 찢러 잡던 일은 고래잡이 기술이 발달되기 전인 19세기말까지도 널리 행해졌다.

Nootka족의 경우, 한 척의 고래잡이배의 선원은 8명으로 짜여지며, 작살잡이 1명, 노젓는 사람 6명, 키잡이 1명이 각각의 일을 나누어 맡고 있으며, 고래잡이를 나갈 때는 보통 2척의 배가 같이 나간다. Tikeramiut족의 경우도 8척의 배가 같이 나가고 있고, Koryak, Chukchi, Siberian Eskimo 등의 선원은 7~10명으로 구성된다. 장생포에서도 고래잡이가 금지되기 전에 한 척의 고래잡이배에는 12~14명 정도의 선원이 타고 각기 맡은 일을 해내고 있었다.

Eskimo족의 고래잡이는 집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고래사냥철이 되면 흩어져 순록을 기르던 사람들마저도 모두가 고래잡이에 참여하는데, 이 때는 순록을 잃어도 순록에는 관심도 없을 정도로 집단에서 차지하는 고래의 위치는 대단하다.

4. 고래분배그림

이 그림은 잡아 온 고래의 분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예로써 Tikeramiut(Tigara의 Eskimo)족의 고래분배과정을 들 수 있다.

고래가 날라와 지면 각 배의 선원들은 주어진 고래의 부분에 작살을 쫓는데, 비록 소란한 말다툼은 있지만 분배규칙에 신중히 따른다. 각 선장들은 고래의 몸통가운데 관습상의 부분을 갖고 가서 선원들에게 분배한다. 이러한 고래분배과정에서 나누어진 고래는 모두 10여 토막 이상이 나게 된다.

Nootka족의 경우도, Tikeramiut족과는 나누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두머리 선장이 관련된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고래고기를 분배한다. 이

Nootka족의 고래분배과정에서도 그에 따르는 엄격한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도 Greenland Eskimo가 고래 뿐만 아니라 곰·해마 등의 분배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듯이 Siberian Alaska의 바다젓먹이집승사냥사회는 모두가 엄격한 분배규칙을 지키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경제, 정치생활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배규칙을 후세들에게 엄격히 가르치고 있다.

이 분배과정의 엄격한 규칙은 동원된 배와 배에 탄 선원들의 수와 역할에 따르는 것인데, 이를 분석해 보면 대략 사회집단의 크기와 마을사람의 수를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고래사냥집단은 대부분 많은 친척들의 혈연관계로 구성되는데, Nivkhi족은 부계 50인 이상의 가족으로, Aleut인은 모계 20~30인 가족으로, Koryak족은 부계 6~40인 가족으로, Tlingit족은 모계 25~50인의 가족으로, Inupiat족은 8~12명으로 가족으로 구성되어 한집에 살면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고래사냥에 나갈 때는 집단내 친척들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위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위에서 살펴 본 Tikeramiut족의 8명이 탄 8척의 배가 고래잡이 나가는 점을 참고로 하여 대곡리 바위그림을 남긴 집단의 크기를 추정해 보면 선원이 $8 \times 8 = 64$ 명이 되고 이 가운데 가정을 갖고 있는 선원의 비율을 최소 30%로 잡는다 하더라도 약 20명이 되는데 대개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가족구성원인 핵가족 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명이 넘는다. 또한 Uyak Bay의 마을은 20가정의 확대가족으로 이루어지고, Maritime Chukchi족은 친척 5~6 독립가족으로 선원을 구성한다는 점을 참고하고, 위에서 살펴 본 시베리아 고래사냥 집단의 한 가족 구성을 약 30명으로 잡는다 하여도 최소한 150~200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며, 이웃집단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래는 작게는 10여톤에서 100여톤에 이르는 고기, 뼈, 내장, 기름, 수염 등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웃지역과의 교역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소비량을 추정하여 위의 조직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해 보면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리라 생각된다.

5. 얼굴

얼굴의 표현은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얼굴에 대하여는 둥근 눈과 가는 눈의 표현차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면서 전기구석기시대의 머리뼈 숭배신앙(Skull Cult)이 “얼굴” 숭배로 바뀌어 온 것으로 파악하여, “얼굴”을 주제로 한 예술활동은 죽은 사람을 위하는 생각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아, 장례-의식-믿음-종교에서 온 것으로 이해

하고 있다.

이 바위그림의 “얼굴”에 대하여는 가면으로 또는 데드마스크 같은 가면으로서 못하고 있는 무당의 가면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가면으로 보더라도 가면은 원주민사회에서 가면을 만드는데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바위그림의 “얼굴”은 어떤 의식을 위한 표현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 “얼굴”은 이 사냥집단의 지배력을 가지고 사냥에서뿐만 아니라 그 집단내에서 상당히 존경받던 집단의 우두머리가 맹수사냥에서 죽은 뒤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그려 놓았을 가능성이 짙다. 라스코(Lascaux) 동굴에서도 죽은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려 한 예가 있다.

이와는 다르지만, Nootka족의 경우, 고래사냥에 사람의 머리뼈와 시체를 안치하고 그것이 썩어 버리면 나무로 서있는 사람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고 있으며, Aleut와 Pacific Eskimo는 신성한 동굴에 위대한 고래사냥 조상(great whaling ancestors)을 미이라로 만들어 안치하고 숭배하고 있다.

맺음말 - 고래사냥집단의 영재교육

이 바위그림은 오늘날의 거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듯이 수렵과 지방등 생활필수품과 많은 신선한 고기를 공동체 전체성원에 제공할 수 있는 식량자원으로 대단히 중요한 고래를 잡는 일과 관련된 어떤 숭배의식(cult)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즉 고래잡이와 관련하여 고래의 많은 번식과 잦은 출현, 고래잡이에서 필요시 되는 고래의 생태와 사냥에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고래잡이 동안에 닥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신체적·심리적인 교육 및 의식집행, 죽은 고래에 대한 재생을 기원하는 의식용이자 교육용 그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잡이는 성난 고래가 배를 들러 엮기도 하고 고래사냥꾼의 다리를 줄로 엮어 끌어가기도 하며, 배에 충돌하여 배를 부수기도 하여 끌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격한 훈련과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듯 고래잡이에는 많은 준비와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의례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냥꾼 사회의 교육은 고래사냥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사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어릴적부터 사냥철이 되면 어른들과 같이 사냥대상 짐승의 생태적 특징, 치명적인 부분, 동물에 따른 사냥법, 사냥해야 할 계절, 번식기 등 잡지 말아야 할 시기, 사냥할 때에 지켜야 할 점 등을 몸에 익히게 된다.

사냥지역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서 지세·식물·수자원의 위치, 어리거나 늙은 짐승에 따르거나 계절·기후에 따른 각 짐승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익혀야 한다. 또한 어린이 교육을 위해 죽이기보다는 산채로 잡기도 한다.

고래잡이는 특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 것이어서 직접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 놓고 비성어기에 일정한 장소(바로 이곳)에서 특별한 의식·훈련·교육 등을 통하여 고래의 생태 등 고래에 관한 모든 것들과 고래잡이에 대한 지식을 집단성원들에게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집단적인 의례(ritual)를 통하였던 것인데, 고래에 대한 의례는 고래축제(whale feast), 고래의식(whale ceremony) 또는 고래숭배신앙(whale cult) 등으로 불리며, 이 의례의 존재가 여러 원주민들 사이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고래의례는 기술, 경제, 사회정치, 주술-종교적(magico-religious)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나 숭배의식은 주로 겨울철, 비성어기에 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Siberia나 Alaska에서는 고래사냥과 의례에 따른 축제일을 특별한 부호로 상아뼈에 새겨놓은 종교달력(religious calendar)에 따라 철저히 지켜가고 있다. 장생포에서도 고래사냥이 있어 고래를 잡으면 맛있는 꼬리부분과 등부분을 잘라 고래사당에 바치고 고래를 위로하면서 다음해에도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빈다.

또한 눈이 많이 쌓인 곳을 좋아하는 사슴(순록)이 보이고 있어 사냥계절이 추운 때임을 말해 주고 있다. Ainu족의 경우, 사슴이 고기와 가죽의 식량자원으로 매우 중요하여, 여름철에는 주로 고기잡이를 하고, 강둑지역에서는 가을에, 물길이 있는 언덕지역에서는 초겨울이나 짐승의 겨울 서식지에서 사슴사냥을 한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나 북서부의 인디안들도 고래사냥으로 채워지지 않는 식량자원의 확보를 위해 고기잡이와 사슴(순록)을 기르거나 사냥을 한다. 이렇듯 사냥은 계절의 제한을 많이 받는 것인데, 특히 사슴은 가을~겨울철에 발정기를 거쳐 다음해 4~7월경에 새끼를 낳게 되는 까닭에, 번식기를 피해 사냥꾼들은 사냥철인 가을을 기다린다. 사냥이 시작되면 모든 사냥지역의 많은 공동체가 해체하여 사냥에 참여하고 사냥이 끝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북아메리카의 북부산림(boreal forest) 지역의 주요 사냥동물이 사슴이며, 사냥은 겨울철에 가장 잘 된다. 눈 때문에 동물들의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눈 속에서 몰아잡기를 한다. 그리고 겨울동안에는 더 많은 짐승지방이 필요시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바위그림에 대한 시기를 추정해 보면 이곳의 동물상(Fauna)이 홍적세의 동물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면그림들은 바위에 고래가 나타나는 것은 신석기시대, 배그림이 등장하는 것을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라는 점 등을 고

려하고, 오늘날의 원주민들의 생활모습이 신석기 시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 고래숭배신앙(Whale Cult) 그림은 신석기시대 후기 이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보이며, 선그림들은 그 수법이나 내용, 사냥에 관한 지식과 도구 등으로 보아 평면그림 보다 늦은 신석기시대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대곡리 바위그림은 여름에는 고래사냥을, 겨울에는 주로 사슴사냥을 하면서 고래숭배신앙(Whale cult)을 행하였던 집단들이 오랜세월동안 세대를 거듭하여 살아가면서 자연환경과 사냥대상 짐승의 변화에 따른 사냥수단과 기술의 발달, 사회체제와 사회관습, 사유체제의 변화 등 변화되어 가는 삶의 모습을 세대에서 세대로 가르치면서 남겨놓은 집단의 역사로 풀이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그림은 그 배치에 있어 Chukchi족이 물개가족에 그들의 1년 생활, 즉 고래사냥, 고기잡이, 순록사냥, 여행, 외부인과의 접촉, 마을과 캠프생활, 춤, 성생활, 정령, 종교적 상징, 의례장면 등 상세하게 그려 놓은 그림과 너무도 비슷하여, 이 그림도 당시 고래사냥꾼들의 사회, 경제, 종교, 교육 등 생생한 삶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종합언어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모든 원주민사회에서는 입문식(Initiation)이나 성인식과정에서 젊은이들에게 그 사회가 정한 일정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여 무사히 마친 뒤에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 역시 구성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위하여 생생한 사실과 체험,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당시 사냥꾼사회의 영재교육을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모든 우리 문화유산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깔려 있음을 인식하면, 그 속에는 과학과 영재교육을 위한 지식이 무진장하며, 아울러 과학영재가 남긴 산물이라는 점도 다시한번 깨우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예술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되던 석기(주먹도끼), 잔무늬거울,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종, 첨성대, 석굴암, 탑, 우리집 등등 모든 문화유산이 과학기술이 없이는 예술성을 갖출 수 없었음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올바른 인식이 영재교육의 한 뿌리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정동찬, 1996. 『살아있는 신화, 바위그림』(혜안)